

영광군,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 최우수 'S' 등급



영광군에 설치된 농어촌 최초 메이커스페이스인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가 디지털교육과 프로그래밍, 3D 디자인 등 메이커교육과 청년 창업교육, 창업지원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1일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는 최

농어촌 최초 메이커스페이스 '성과'...전남 유일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하는 창의적 공간 최선"

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64개 메이커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연차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지역(농어촌)에 설치된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는 전남 도시지역의 메이커스페이스들보다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며, 전체 메이커스페이스들중에서도 10% 이내의 상위 평가를 받게 되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용인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과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연계지원으로 지역사회 창직지원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김동규 청소년자람터 오늘 이사장은 "적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메이커 교육과 창업, 창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많은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팀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다른 농어촌지역에 좋은 선례가 되어달라."며,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군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영암군은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5월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기계사고는 173건으로 경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특히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사고 발생은 5월부터 10월까지 65%로 집중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 원인은 운전부주의 78%, 안전수칙 불이행 20%, 정비 불량 순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용방법 숙지와 안전교육, 기계점검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농기계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논·밭·비탈길 운행이 잦아 전복되는 경우 농기계 밑에 깔릴 수 있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생태계 조성에 박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맞춤형 컨설팅 개최 목포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서 선정됐으며, 매년 입주기업을 모집해 최대 2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전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목포역 인근의 KT 빌딩에 입주할 예정인 센터에는 20개 기업의 입주공간과 협업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며 매년 2억 2천만원의 운영비가 5년간 국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4~15일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회계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적기업 실무, 인사·노무, 세무·회계, 사회적가치평가지표(SVI) 등의 등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대표가 다년간의 경험을 녹여낸 실무 중심의 교육과 기업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월에 문을 여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수선화 머물던 자리에 금영화 활짝"

신안군 수선화 섬 선도, 8월까지 꽃 피워...사계절 꽃 피는 섬

신안군 지도읍 선도도는 섬 전체 모양이 매미를 닮았다 하여 매미섬(蟬島)이라 부르는 인구 200여명 남짓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섬 전체 밭 면적의 10%(약 8ha)에 전세기 수선화 100여종을 심어 2019년 첫해 축제에 섬 전체 인구의 50배가 넘는 12천여 명이 다녀갔고, 2020년엔 가고싶은섬에 선정돼 주택, 창고 등 모든 시설물에 노란색을 입혀 매년 봄섬 전체가 노랑 물결로 넘쳐나는 획기적인 컬러마케팅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지만해도 5월이면 수선화가 지고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선화가 머물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금영화 때문이다. 금영화는 캘리포니아양귀비라고도 하며, 높이30~50cm로 5월부터 8월까지 꽃이 핀다. 금영화의 '감미로움', '나의 희망을 받아주세요'란 꽃말처럼 코로나19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꽃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이 선도를 찾아온 이들에게 반가움을 표하고 에메랄드빛 바다와 청아한 보리밭 사이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금영화는 꽃이 진 수선화를 찾아온 이들에게 따뜻한 봄을 잊게 해주는 것 같다. 선도의 봄은 수선화로 시작해 노랑 물결 금영화로 이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사계절 꽃피는 섬이 돼가고 있는 셈이다. 수선화 섬 선도에서 노랑 물결 넘쳐나는 금영화 천국을 만나 볼 수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 기간

무안군은 자살 고위험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를 자살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살 고위험군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에 비해 3~5월은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한 때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장소 11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활용해 자살예방 홍보문구와 동영상 송출하고 있다. 특히 자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체면 칠산대교에 자살예방 로고젝터를 설치했으며, 농약안전 보관함이 있는 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 '미니 단호박 조기 출하'로 '시장 선점'...소득증대 기여



타 지역보다 한 달 이상 빠르고 높은 당도 자랑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함평 단호박'이 이달부터 본격 출하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 지역특화작목인 함평 단호박이 일관적인 단호박 출하시기(6월말~7월초)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조기 출하된다. 군은 단호박 조기재배 및 수확을 통한 시장 선점으로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생산비 장려금, 기술 보급 등으로 단호박 수확시기를 앞당겼다. 조기재배 규모는 13농가 4ha로, 연간 96톤 이상의 단호박이 생산되며 연간 2억여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시설원에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 및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사업'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호박 시설재배를 장려해 조기재배와 좋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